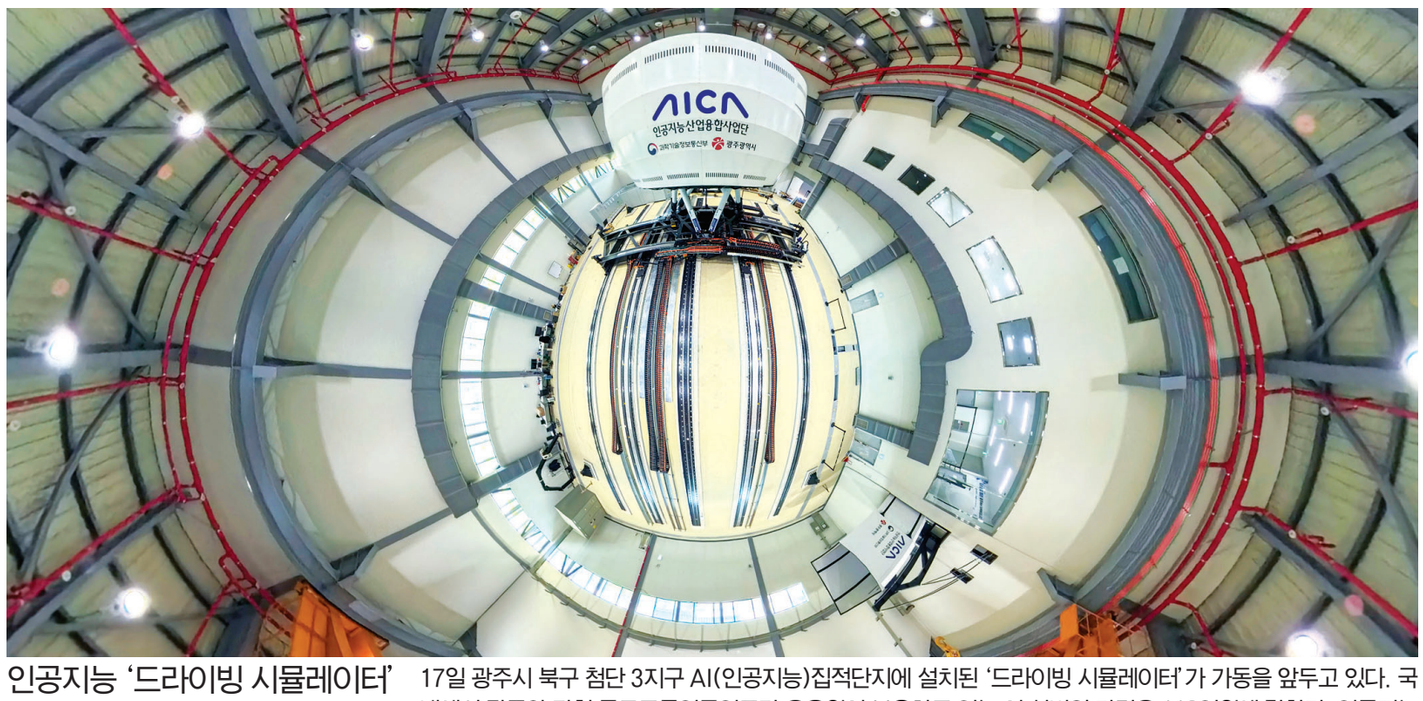
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7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1일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호남의 열망은 균형발전·경제도약



인공지능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17일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 AI(인공지능)집적단지에 설치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광주와 과천 국토교통연구인프라 운용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설비의 가격은 112억원에 달한다. 인공지능을 접목해 이동 수단 등의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첨단 인프라다.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광주 5·18 정신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민이 80년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5·18을 주목하고 광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대민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낸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산업인프라가 취약한 도시다. 광주와 전남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었고,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는 낙후의 대명사였다. 역대 정권에서 경부축 중심의 정부 경제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성장은 더뎠고, 호남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야 했다.

취약한 산업인프라에다 수도권 편중정책으로 밀려난 탓에 현재도 청년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농촌에는 빈집이 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1위(26.5%)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대도시 광주는 인구 정체, 전남과 전북은 인구 소멸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총체적 난국이다. 전남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료취약지 98곳 가운데 17곳으로 가장 많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공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몰락한 윤석열 정부도 수도권 편중정책을 펴면서 호남의 낙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고착됐다.

광주·전남지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치러지는 21대 '6·3 장미 대선'을 각별히 주목한다.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의 한계를 극복하며, 도약을 맞기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대선을 겨냥해 각당과 대권주자들에게 공약사업을 전달했다. 산업화 시대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AI 첨단산업 시대에는 광주와 전남이 우뚝서기를 바라는 여망이 응축된 청사진이다. 지역민은 이들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국책사업과 정부지원 사업으로 결실 맺기를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의 핵심 현안은 인공지능(AI) 중심의 도약과 미래 모빌리티(Mobillity)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먹거리 창출이다.

시는 세계적 규모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 인프라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준비중이지만 국비 지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실증도시' 구축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이야말로 모든 도민들의 관심사이자 바람이다. 전남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30년 넘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그동안 통합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두 대학(목포·순천대)이 손을 맞잡은 것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동·서부권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최대 현안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차기 정부에서 호남의 현안이 국책사업 채택과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이어져 실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사람과 기업이 몰리고, 문화예술이 꽃을 피우며, 후한 인심과 공동체의 정이 살아 있고, 공간의 개성과 매력이 넘쳐 생기가 도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창간 73년 제안

산업화시대 '기울어진 운동장'
AI 첨단시대에는 차별 없어야
사람·기업 몰리고 문화예술 꽃피워
공동체의 정·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창간 73주년 특집 32면 발행

광주일보 창간 73년, 걸어온 길 ▶8면
호남예술제 70년, 60만명이 참가했다 ▶10면
치매가 스며든다…환자 100만명 시대 ▶11면
창간 73주년 함께한 기업·기관들 ▶13~20면
KIA 전상현 "나만 잘하면 된다" ▶24면
전라도 외국인 - 대불산단서 '코리안 드림' ▶26면
TV 프로그램·오늘의 운세 ▶27면

창간 73 기획

고품격 콘텐츠로 아침을 엽니다

광주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을 바탕으로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사시를 한결같이 실천했습니다.

광주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혁신적인 지면, 신선한 디지털 콘텐츠, 풍성한 읽을거리로 독자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혼돈의 시대에 더 신뢰받는 뉴스, 가치있는 고품격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 디지털·영상 콘텐츠 강화합니다

독자 친화형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다양화했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디지털뉴스 본부는 뉴스의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독자들이 사실과 진실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영상 전담기자들이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다양한 사진과 그래픽을 보태 기사의 깊이를 더 했습니다. KIA타이거즈 프로야구 소식과 광주FC 축구단 소식을 담아온 광주일보 유튜브도 정치와 사회 뉴스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맛, 멋, 흥'을 주제로 한 다채널로 확대해 깊이와 재미를 동시에 전달하겠습니다.

2. 홈페이지 산뜻하게 바뀝니다

뉴스를 단순 나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뉴스, 사진, 영상 등의 배치를 바꿔 시원한 화면을 통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였고, 시리즈 기획물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독자들이 필요한 기사를 곧바로 찾을 수 있도록 메뉴 구성도 단순화하고, 모바일 독자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경하겠습니다.

3. 국내 최고의 필진이 독자를 만납니다

'괴테 할머니' 독문학자 전영애 서울대 명예교수, 이정모 전 국립과천 과학관장, 장일범 클래식 칼럼니스트가 '테마칼럼'의 새로운 필진으로 참여해 과학,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집필합니다. 또 '월요광장'은 인문도시 광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형중 조선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한 임몽택 미네르바코칭앤컨설팅 대표가 필자로 함께 합니다.

4. 시대를 읽는 기획물 새롭게 연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고품격 연중기획, 미래형 기획물도 준비했습니다. 국내 노인 치매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역 치매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치매에 스며들다'와 다문화가 어우러진 성숙한 사회를 제안하는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전라도 외국인 상생 도시로서 첫걸음'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조인호 광주미술연구소장은 '키워드로 보는 광주전남미술사' 연재를 통해 지역 미술계의 역사를 살피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견인할 발전 방안을 제안합니다.

5. 호남예술제 70년 풍성하게 진행합니다

올해로 개최 70년을 맞은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가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 쌓아 올린 예술 금자탑입니다. 호남지역 언론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호남예술제는 대한민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스타 예술가를 배출했습니다. 창간 연중기획 '호남예술제 70년'은 스타들의 초기 작품세계와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광주의 문화와 예술의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물입니다. 호남예술제 작품전 등 70년을 돌아보는 행사도 풍성하게 진행합니다.

光州日報社

광주일보 73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